

제3한강교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7.07.12	조사자	정화영	유형구분	문화예술-연구진제안
------	------------	-----	-----	------	------------

대상명	제3한강교
-----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무형	물리적형태	-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가수	혜은이	작사가	길옥윤	작곡가	길옥윤
음반 제작연도	1979년	음반 제작사	-	음반 규격	-
가사	<p>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음은 피어나는 꽃처럼 이 밤을 맴돌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p> <p>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면은 첫차를 타고 행복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p> <p>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p> <p>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밤이 새면은 첫차를 타고 행복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p> <p>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p>				

평가	<p>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한강의 네 번째 다리인 제3한강교는 1966년 1월에 착공해서 1969년 12월에 개통됐다. 이후, 1984년에는 한남대교로 개칭되었다. 헤은이가 1979년에 노래한 <제3한강교>는 바로 이러한 한강과 한강다리의 역사와 함께 하는 노래이다. 대교가 건설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가 건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교가 건설되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대교가 서울 강남 지역에 대규모 신시가지가 조성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 노래를 부른 헤은이(본명 김승주)는 1975년에 <당신은 모르실거야>로 데뷔했는데,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감직한 외모로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얻었다. 특히 1977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Saturday Night Fever>(존 트라볼타 주연)가 1978년에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면서 디스코 열풍을 불러왔다. <제3한강교>는 그 디스코의 열기를 반영하는 초기의 대표적인 노래에 해당한다. 특히 노래 중간에 헤은이가 손가락 두 개를 공중으로 찌르는 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노래가 더 유명해졌다.</p> <p>하지만 가사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즉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가 어떻게 처음 만나 사랑을 할 수 있느냐며 불순하다고 해서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후, 헤은이는 원 가사로 다시 노래를 취입하기도 했다.</p> <p>한편 <제3한강교>는 노래의 인기에 힘입어 동명의 영화로 1979년에 개봉되었다. 김정현이 감독한 이 영화에는 헤은이, 이계인, 원미경, 손창호 등이 출연했다.</p>
----	---

2. 보존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서울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음 - 서울의 근현대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


3. 활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 연관된 노래에 대하여 기록화하고 자료를 수집 - 시민홍보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


4. 소유자(관리자) 면담

면담자	
면담내용	

5. 인물(사건)에 관한 기본정보

이름	혜은이(김승주) (1956년 ~ 현재)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6년 제주도 제주시 출생 - 1973년 대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졸업 - 1975년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가수 데뷔 - 2012년 애니자임 대표이사 		
주요 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년 노래 「당신은 모르실 거야」 - 1977년 노래 「진짜 진짜 좋아해」, 「뛰뛰빵빵」, 「당신만을 사랑해」,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이여 언제까지나」, 「감수광」 - 1978년 노래 「영원히 당신만을」, 「서귀포의 꿈」 - 1979년 노래 「제 3한강교」, 「나는 너를」, 「새벽비」, 「철새」 - 1980년 노래 「후회」, 「추억」, 「옛사랑의 돌담길」, 「당신과 나」 - 1981년 노래 「잊게 해주세요」, 「엄마없는 아이」 - 1982년 노래 「독백」, 「질투」 - 1983년 노래 「작은 숙녀」, 「애들아」 - 1984년 노래 「이별의 종점」, 「됐어요」 - 1985년 노래 「열정」, 「파란나라」 - 1989년 노래 「비가」, 「바람같은 그대」 - 1990년 노래 「내 남자」, 「잃어버린 추억」 - 1992년 노래 「바람이 지나간 자리」, 「나는 여자예요」 - 1995년 노래 「이 어둠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 2007년 노래 「강해야 돼」 - 2015년 노래 「눈물샘」, 「외로움이 온다」 		
수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년 MBC 10대 가수 가수왕, KBS 10대 가수상, TBC 여자 가수상 수상 - 1978년 뉴질랜드 제 1회 태평양 국제 가요제 금상 - 1979년 MBC 10대 가수 가수왕 및 최고인기가요상 수상 - 1980년 서울국제가요제 은상 - 2002년 KBS 가요무대 선정 아름다운 사랑노래 1위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년 드라마 「드라마 왜 그러지」 - 1978년 영화 「당신만을 사랑해」 - 1979년 영화 「제 3한강교」 - 1980년 영화 「멋대로 해라」 		

※ 출처: 한국 대중가요 앨범6000 [혜은이]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인물검색 [혜은이] (<http://people.search.naver.com>), 위키백과 [혜은이] (<https://ko.wikipedia.org>)를 바탕으로 재정리

이름	길옥윤(최치정) (吉屋潤, 1927년 ~ 1995년)	인물사진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7년 평안북도 영변 출생 - 1941년 평양 종로국민학교 졸업 - 1947년 평양 고등보통학교 졸업 - 1949년 경성대학교 치과대학 입학 - 1952년 일본 주일미군캠프촌 순회 악단 조직 및 예명 '요시아준' 으로 활동 - 1960년 동경 스윙 오케스트라 악단 인솔하여 서울 귀국 - 1962년 「내 사랑아」 서울에서 작곡가로 데뷔 - 1981년 태양음악주식회사 창설 기념으로 「길옥윤 전집」 출판 - 1983년 서울예술전문대학 실용음악과 주임교수로 취임 - 198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 1985년 88올림픽 공식 주제가 「아침의 나라에서」 작곡 당선 - 1989년 신사동 '창고' 야간업소 운영 - 1994년 척추 수술 이 후 SBS TV 마지막 콘서트 방송 - 1995년 사망 	
주요작품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년 작곡 「내 사랑아」 - 1965년 작곡 「사랑은 영원히」, 「부산찬가」 - 1967년 작곡 「빛과 그림자」 - 1969년 작곡 「서울의 찬가」, 「1990년」 - 1971년 작곡 「이별」 - 1973년 작곡 「서울의 모정」 - 1976년 작곡 「당신은 모르실 거야」 - 1979년 작곡, 작사 「제 3한강교」 - 1994년 작곡 「부산찬가」, 「2002년」 	
수상경력	-	
기타사항	-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길옥윤] (<http://terms.naver.com>), 두산백과 [길옥윤] (<http://terms.naver.com>), 위키백과 [길옥윤] (<https://ko.wikipedia.org>)를 바탕으로 재정리

6. 기타사항

□ 가요앨범 리뷰 - 혜은이 고운노래모음집 VOL.7

1979년 발매한 혜은이 7집 음반으로 <제3한강교>가 크게 히트하면서 대중가요의 디스코 열풍을 주도했다. 이 노래는 발표 당시 가사 일부가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개사 명령을 받았지만 혜은이는 같은 해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최고 인기가수상을 수상했다.

디스코풍의 <제3한강교>의 큰 히트

1979년 히트레코드사에서 발매한 혜은이 7집은 이전 작품과 마찬가지로 작곡가 길옥윤의 작품집이다. 길옥윤의 창작곡은 타이틀곡 <제3한강교>을 비롯해 <나는 너를> 등 7곡이고, 변안국 4곡을 함께 수록했다. 동요 <엄마야 누나야>는 김소월의 시에 길옥윤이 새롭게 작곡한 멜로디를 붙였다. 수록곡 중 타이틀곡 <제3한강교>가 크게 히트하면서 <당신만을 사랑해>, <뚜뚜 빵빵>, <감수광>에 이어 혜은이의 인기를 지속 시켜주었다. 총 12곡을 수록했지만, <제3한강교>가 크게 히트한 후 곧바로 후속 음반을 발매했기에 다른 곡들은 빛을 보지 못했다.

디스코 열풍을 몰고 온 <제3한강교>

1970년대 후반 국내 가요계에서는 디스코 열풍이 대단했다. 1977년 존 트라볼타가 주연한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를 시작으로 이은하의 <밤차>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디스코 음악이 인기를 끌었다. 길옥윤도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제3한강교>를 만들었다.

혜은이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간주 부분에서 음반에는 없는 ‘헤이!’ 라는 주입세를 넣었는데 이것이 유행어처럼 번져 제3한강교를 대신하는 말로 쓰였다 “고 TV 조선 프로그램 「황금편지」에서 밝혔다. 제3한강교는 1964년 도강용으로 건설해 한남동과 신사동을 잇는 강남 개발을 이끈 다리였으나, 1984년 한남대교로 개명하면서 원래 명칭은 사라졌다.

이 노래는 발표하자마자 히트했지만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답니다” 라는 가사 설정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개사 명령을 받았다. 이에 “어제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하고” 로 가사를 수정했다. 혜은이는 2006년 새 앨범에서 핑키한 버전으로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 이때 가사를 원곡대로 복원해, 강요에 의해 개사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의 억울함을 풀었다.

1979년 MBC 10대가수 최고인기가수상 수상. 후배가수들이 계속 리메이크

혜은이는 이 음반과 같은 해에 발표한 「고운노래모음집 8집」의 <새벽비>까지 히트시키며 1977년에 이어 1979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최고 인기가수상을 수상했다. <제3한강교>는 이후 여러 가수들이 다시 불렀다. 2005년 4인조 여성 그룹 LPG가 댄스 트로트 버전으로 다시 불렀다. 2012년 6월 MBC TV 「나는 가수다2」에서 가수 이수영이 6월 A조 경연에서 부른 후, 다음해에 발표한 음반 「클래식 더 리메이크 두 번째」에도 수록했다. 2015년 3월 「불후의 명곡」 ‘혜은이 편’에서는 가수 문명진과 래퍼 댄딘이 듀엣으로 불렀다. 1984년 이후 제3한강교라는 다리 이름은 사라졌지만, <제3한강교>는 한강과 다리를 소재로 한 노래 중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비 내리는 영동교> 등과 함께 강남 개발 붐과 맞물려 큰 사랑을 받은 노래로 남았다.

□ 관련기사 - “제3한강교'에서 '강남스타일'까지, 가요에 비친 서울의 속살”

1979년에 발표된 혜은이의 <제3한강교>. 이 노래는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밤이 새면 첫 차를 타고 이름 모를 거리로 떠날 거예요”라는 가사 때문에 금지곡이 되는 소동을 겪었다. 어떻게 ‘처음 만나서 바로 하나가 되느냐’는 것이었다. 이 가사는 당시 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원나잇 스탠드’로 비쳐졌다. 결국 이 가사에서 ‘처음’을 ‘다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를 ‘맹세를 하였습니다’로 가사를 바꾼 후에야 금지곡에서 풀리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이름 모를 거리’도 밝은 분위기의 ‘행복 어린 거리’로 가사가 바뀌었다. 재미있는 것은, 얼마전 '핑크'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 했을 때 다시 원래 가사대로 불렀다는 사실.

강남 개발의 시초가 됐던 제3한강교 즉 한남대교. 한남동과 강남 영동(영등포의 동쪽, 즉 지금의 ‘강남 3구’를 지칭하던 단어) 지구를 연결하면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던 제3한강교는 강남의 상징과도 같은 다리였다. 혜은이의 <제3한강교>는 이렇게 1970년대 말 화려한 향락가로 변모된 강남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였다.

출처: 노컷뉴스 2013년 7월 4일 기사내용 (<http://www.nocutnews.co.kr>)